

선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 양동복 · 정중식* · 김주성**

†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대학원,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Job Stress and Satisfaction of Seafarers

† Dong-Bok Yang · Jung-Sik Jeong* · Joo-Sung Kim**

† Graduated School,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Divis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Division of Navigation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요약 : 선원은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적 요인,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선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여러 직무스트레스요인 중 조직 구성원 상호간 발생하는 관계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관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운항급 사관이 받는 직무스트레스가 관리급 사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운항급 사관의 직무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박의 관리급 사관의 의식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며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선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선내 인간관계

Abstract : Crew on board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in a limited space. Personal factors and job stress affect job satisfaction of seafarers. In this study, it was conducted for a basic survey on relationship stress and satisfaction among the crew members' job stress factors. Job stress of crew who are responsible for the navig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managerial staff, and job satisfaction of navigating crew was also lower than managerial crew.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managerial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these factors beforehand.

Key words : Seafarer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nboard relationships

1. Introduction

선원은 선박이라는 한정된 생활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특수한 생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선박 근로자들은 선상 작업을 통하여 통일적이고 협동적인 과업수행을 요구 받으며, 바다라는 고립적 환경에서 장기간 단조로운 집단생활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 또한, 선내의 환경은 운항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소음과 전체의 동요, 한랭과 폭염, 습도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격리된 채 바다에서 생활함으로써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의 기회가 제약되는 등 내·외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업군이다[2, 3]. 이외에도 연령, 결혼 여부, 자녀존재 여부, 근속연수, 부서, 선내지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선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선원의 직무만족 정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4, 5]. 이처럼 선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육상직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달리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

강장애와 나아가서는 선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관계스트레스는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여러 직무스트레스요인 중에서도 조직원 상호간 발생하는 관계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다.

2. Methods

본 연구를 위해 운항급 선원 33명, 관리급 선원 21명의 사관직급을 대상으로 승선 중 느끼는 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Guide on Eliminating Shipboard Harassment and Bullying 을 기반으로 Table 1과 같이 작성하였다[6].

† hyydb@hmm21.com

* 종신회원, jsjeong@mmu.ac.kr

** 종신회원, jskim@mmu.ac.k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구분	번호	설문문항
공통	1	승선 경력은 얼마입니까?
	2	승선생활에 만족하십니까?
	3	괴롭힘(Harassment)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4	왕따(Bullying)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5	성희롱, 성폭력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6	상기 문제로 인하여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7	상기 문제로 다른 해기사를 상담해준 적이 있습니까?
	8	승선 중 동료가 인간적으로 싫었던 적이 있습니까?
	9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비방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0	비방을 포함하여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동료에 대한 고함이나 욕과 같은 언어적 위협 또는 학대를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1	상대방의 잘못에 불같이 화를 내야 하지만 화를 삭힌 적이 있습니까?
	12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 사례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13	승선생활 중 극단적 선택을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14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운항급	15	조롱을 받거나 음란한 농담 또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6	불쾌감(신체적, 정신적)을 느꼈거나 마음 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7	불쾌한 성격 행위 또는 지속적인 만남의 요청 또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8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조롱하는 행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9	독단적이거나 사나운 관리 스타일의 관리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0	비 의도적인 치명적 실수에 대해 참을성이 낮은 관리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1	승선 중 업무 이외에 게임 및 술자리 강요와 같은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관리급	22	동료 승무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하선을 고려했거나 실제 하선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23	개인적 또는 타인 앞에서 동료 승무원의 잘못을 크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까?
	24	상대방의 용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25	문제점이 식별된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서 사적으로 대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26	내가 가진 권한으로 동료 승무원에게 인사적 불이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27	나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28	상기 27항에 대해, 육상 관련 부서로부터 Feedback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통	29	승선 중 불미스러운 인사문제에 육상에 보고하거나 개인적으로 알린 적이 있습니까?
	30	선내 폭력 및 괴롭힘 등 불만을 처리하는 회사의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31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알고 있다면, 이 절차를 이용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내용은 승선기간을 바탕으로 응답자 기초 조사와 관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승선 중 겪은 경험에 대한 14개 공통 설문문항 설정하고 운항급 사관과 관리급 사관 각 7개 문항의 세부 내용조사를 실시하고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3개 공통문항을 구성하였다.

3. Survey Result

첫째, 운항급 사관의 경우 관리급 사관에 비해 승선 중 다양한 요인에 의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대부분이 괴롭힘, 왕따, 성희롱 등 관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상호 관계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운항급 사관에게는 승선 중 상급자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리급 사관의 경우 운항급 사관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개선 요구 및 지도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운항급 사관의 경우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관리급 사관의 경우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선원 직무상 겪는 스트레스 중 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HMS Training Center 교육생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Guide on Eliminating Shipboard Harassment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관리급 사관보다 운항급 사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따라 관리급 사관의 의식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며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장준혁, “예부선 선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사”,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 [2] 문성배(2013), “선원용 스트레스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13년도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185-187.
- [3] 김윤영(2013), “외항 선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4] 신혜미(2017), “선박조직문화가 선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 Port Economy Association, vol. 33, pp. 121-138.
- [5] 문성배(2006), “선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및 건강도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제30권 제1호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39-45.
- [6] Guide on Eliminating Shipboard Harassment and Bullying,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